



sochi.ru 2014

오늘 개막

# 금빛 코리아 "GO~"

## 이승훈, 내일 첫 메달 사냥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첫 애국가'는 어느 경기장에서 들려올까.

한국의 '메달 종목'인 빙상 중에서도 대회 초반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에서 첫 금메달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꼽힌다.

대회 개막식 다음 날인 8일 오후 8시30분(한국시간)부터 러시아 소치의 아틀레트 아레나에서는 한국 장거리 빙속의 간판 이승훈(26·대한항공)이 남자 5000m에서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따내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긴 바 있다.

이승훈의 이 은메달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종목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메달이라는 의미도 지녔다.

이번 대회에서도 '빙속 3총사' 중 가장 먼저 메달 사냥에 나서는 중책을 맡은 이승훈은 2연패를 노리는 1만m와 사상 첫 메달에 도전하는 팀추월에 잇달아 출전할 예정이다.

이어 10일 오후 10시부터 남자 500m에 출전하는 모태범(25·대한항공)도 첫 금메달 후보 중 하나다.

그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500m에서 우승을 차지, 한국 빙속 사상 최초이자

당시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즌 초반 다소 주춤했던 모태범은 지난해 12월 마지막 월드컵 4차 대회에서 500m와 1000m 모두 정상에 올라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같은 날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는 남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 신다운(21·서울시청), 이한빈(26·성남시청), 박세영(21·단국대)이 출격할 예정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월드컵에서 부진해 우려를 낳은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에서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에는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에 나서는 이상화는 이 종목 우승 후보 '0순위'로 꼽힌다.

지난해 500m 세계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운 이상화는 소치 입성 직전 네덜란드 현지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실전 감각 조율을 마쳤다.

모태범과 이상화는 11일(남자)과 12일(여자) 각각 1000m에도 출전한다.

이후 15일부터는 여자 쇼트트랙에서도 '금빛 질주'가 기다린다.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의 주종목인 여자 1500m는 15일 오후 7시부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다.

심석희는 이 종목에서 2012-2013시즌 월드컵 6개 대회 모두 우승을 차지했고, 2013-2014시즌에도 한 차례를 빼

### 주요 경기일정 (한국시간)

8 (토)	이승훈 오후 8시 30분	남 5000m
10 (월)	모태범 오후 10시	남 500m
	신다운·이한빈·박세영	남 쇼트트랙 1500m
11 (화)	이상화	女 500m



이승훈

고 시상대 맨 꼭대기에 올랐다.

또 18일에는 4년 전 밴쿠버에서 끊긴 여자 3000m 계주의 금맥이 다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같은 날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는 이승훈이 1만m에서 2연패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 서른다섯 女 스키어 '아름다운 도전'

### 광주출신 박희진씨, 첫 정식종목 '프리스타일 스키' 출전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듯한 U자형 슬로프에서 아슬아슬한 공중모기를 펼치는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freestyle ski halfpipe).

설상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기는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이 됐다.

생소하고도 거친 이 종목에 광주출신 여성 스키선수 박희진(35·광주 스키협회)이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박희진(35·광주 스키협회). 조대여고와 홍익대(미술전공)를 졸업한 후 서울 서교동에서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는 그래픽디자이너이자 국내 여성1호 프리스타일 스키어다.

알파인스키로 스키에 입문한 그는 각종 아마추어 대회에서 1~3등을 휩쓸었고 6년 전 공식 협찬사가 생겨 프로

로 데뷔했다.

박씨는 단순히 속도감을 즐기는 알파인스키에 지루해질 때쯤 우연히 프리스타일 스키를 타는 친구들을 만나 이 종목의 매력에 빠졌고, 결국 서른다섯의 나이에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스피드 게임인 알파인스키가 강한 체력과 장신인 서양인에게 유리하다면 프리스타일 스키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자신을 보았다.

박씨의 이번 목표는 모두 12명이 명단을 올리는 결승전 진출이다. 그의 경기는 오는 20일 밤 11시(한국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국선수단 60번째 입장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우리나라 선수단이 대회 개회식에서 60번째로 입장한다.

소치 올림픽조직위원회가 6일(이하 한국시간) 밝힌 개회식 입장 순서에 따르면 한국은 88개 참가국 중 60번째로 들어서게 된다. 개회식에서 선수단 입장은

관례에 따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하고 개최국 러시아 선수단이 마지막에 들어선다.

두 나라를 제외하고 러시아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입장한다. 한국은 폴란드의 뒤를 잇고 다음은 루마니아 선수단 차례다. 일본은 러시아 바로 직전 87번째로 입장한다.

태극전사들은 한국 선수 중 동·히계 대회를 통틀어 올림픽 최다 출전 기록(6회)을 세우게 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의 만형 이규혁(36·서울시청)을 기수로 피시트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서게 된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스킨레이싱 대표팀의 이한빈이 6일 오전(한국시간) 소치 산악클러스터의 샌키 슬라이딩 센터에서 훈련하며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 호텔 무등파크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신년웨딩 큰잔치 2014년 2~3월 중 뷔페 28,000부터(부가세 별도)

웨딩 큰잔치 메뉴(200분 이상) 스테이크 33,000부터(부가세 별도)

무료제공 특전: 객실 2실, 꽃길, 폐백실, 음료, 주류 일반웨딩 200분 대형웨딩 1000분 수용가능

★파격조건 회원 모집중★  
히노끼 천연 온천탕/사우나·헬스이용권  
(개인가족/법인)

호텔무등파크 문의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

